

# “스펙보다, 내적 자아성찰이 우선시 돼야”

## 평화재단 평화교육원, 성년의 날 맞아 2030세대 위한 청춘콘서트 ‘우리 함께 꿈꾸자’ 개최

평화재단 평화교육원(이사장 법륜)이 성년의 날을 맞아 5월 22일 경희대 평화의 전당에서 2030세대를 위한 청춘콘서트 ‘우리 함께 꿈꾸자’를 개최했다. 청춘콘서트에는 2030세대가 추천한 우리시대 가장 존경받는 6인의 멘토인 법륜 스님, 안철수(KAIST 석좌교수), 박경철(시골의사, 칼럼니스트), 김제동(방송인), 조국(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여진(배우) 등이 출연해 5000여 청년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행사는 전체 3개의 세션으로 △안철수·박경철 ‘도전, 우리세대의 창조적 청년리더십’ △조국·김여진 ‘정의, 우리세대의 청년애국가와 정의로운’ △법륜 스님·김제동 ‘행복, 우리세대의 정체성과 자립하는 삶’에 대해 이야기 했다. 이날 행사는 대학 새내기들 비롯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사회초년생들,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6인의 멘토가 직접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정리-이은정 기자

### # 청년, 도전하다



안철수



박경철

**박:** 요즘 ‘멘토’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정신적 멘토라는건 어떤 것을 의미한다고 보십니까?

**안:** 얼마 전에 설문조사를 보니, 청년 분들이 멘토에게 가장 기대하는 부분 1위가 ‘자신의 고민에 대해 답을 주는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개인적인 경험으로 비추어 봤을 때, 자신의 문제를 남에게 말하면 시간이 흘러 비슷한 고민거리에 부딪혔을 때, 그 문제에 대해 판단이 서질 않는다는 겁니다. 심각하게 고민하지도 않고, 단순히 멘토에게만 의지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다 보면 나중에는 문제를 풀 수 없게 돼버립니다. 멘토는 답을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멘토도 조언자에 불과합니다. 누군가 아무리 좋은 답을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에게 그 판단이 올바르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박:** 오늘 교수님과 제가 나누는 주제가 ‘도전’입니다. 요즘 20대들에게는 ‘도전’이라는 말 자체가 마치 하나의 큰 숙제라



5월 22일 열린 청춘콘서트에는 법륜 스님, 안철수, 박경철, 조국, 김여진, 김제동이 참석해 5000여 청년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고 볼 수 있습니다. 안철수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안:** 도전이라는 것은 20~30대 세대가 자녀야할 당연한 과제입니다. 나이를 떠나서 과거에 집착하면 노인이고, 미래를 바라보면 청년입니다. 도전은 청년들의 특권입니다. 이 시대에 도전이라는 것이 자주 강조되는 이유는, 갈수록 도전하기가 힘든 세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점점 ‘도전’이라는 것을 하기 힘들까 생각해 보면, 그 답을 한국 역사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꼴찌에서 3등을 할 정도로 못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가 지금 세계 10위권에 들 정도로 빠른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한국은 당시 정말 가진 것 하나 없는 나라였기 때문에, 새로운 것에 잘못 투자했다가는 두 번 다시 재기를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선택한 방법이 남들이 잘 한 것을 보고 성공 가능성이 입증되는 것들을 그대로 베끼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라고 합니다. 한국은 투자를 하면 절대 실패를 용납하지 않

았습니다. 전속력으로 달렸고, 그 과정에서 누군가 넘어지면 짓밟고 지나갔습니다. 실패한 자는 절대로 살려두지 않았습니다. 현재 한국은 개인당 2만 불을 소득 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문제는 한국이 6년째 소득 수준이 2만 불에 멈춰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두려워해야 할 부분은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지금 무서운

고 치면, 그 천재가 아이디어를 내놓고 결과가 실패로 돌아가면 바로 사회에서 매장시켜 버립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본 다른 천재들은 자신이 아무리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어도 내놓지 않게 됩니다. 결국 이 같은 상황이 한국 발전 가능성에 발목을 잡는 것입니다.

**박:** 지금 기성세대들이 지난 시절 성공

금 이것이 문제라고 느끼고, 잘못됐다고 깨달았지만 관성에 의해 그 문제를 멈추고 고칠 수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회구조 현상들은 항상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야합니다. 저는 카이스트에서 학생들 상담을 많이 했습니다. 그중에서 어떤 학생이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거기가 부모님 말씀까지 잘 듣습니다. 1~2학년 때는 학교에 입학해서 문제없이 지나다가, 3학년이 돼서 뒤늦게 정신차리고 보니 자신의 전공이 정석에도 안 맞고, 평생 이걸로 살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1년 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했지만, 답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기계공학 전공이었던 이 학생은 산업디자인과로 옮기고 싶었는데, 전과를 하자니 시간도 많이 지난 것 같고, 만약 이 길을 선택했다가 또 다시 이 길도 나랑 맞지 않다고 판단이 들면 회로가 차단될 것 같다는 겁니다.

**김용이:** 얼마나 빨리 흘러가는지 알려면, 강둑에 앉아서 보고만 있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신발을 벗고 강물에 뛰어들어 직접 강물의 물살을 느껴봐야 합니다. 저는

### 과거 집착하면 노인, 미래 바라보면 청년 실패해도 그 시간은 인생의 값진 시간

속도로 한국을 따라잡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바로 아무도 안하는 분야에 뛰어 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실패한 자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실패자를 전염병처럼 만들어 재기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예를 들어 천재 한 명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었다

을 이루 살고 있는 세대들입니다. 기성세대들은 자신의 성공양식을 그대로 지금 세대들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우선 부모가 자식에게 자신이 살았던 방식을 그대로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성세대의 양식을 가지고 현재의 사회를 살면 무조건 실패하고 맙니다.

**안:** 심각한 것은 사회구성원 전부가 지

어떤 선택을 해서 실패를 하더라도 그 시간은 굉장히 값진 시간이라고 봅니다.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대 졸업연설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자신의 하는 일이 어디에 쓰일지는 모른다. 그 일이 성공을 할 수도 실패를 할 수도 있지만, 열심히 도전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다 세월이 흘러 뒤돌아 보면 다 연결돼 있다.” 과거의 경험은 나름대로 자신의 인생에 다 유용하게 쓰일 것입니다.

**박:** 도전을 논할 때, 자신의 가치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보통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지향하는 목적이 달라지는데, 확고한 가치관을 갖지 못하면 어떤 선택을 함에 있어서 문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선택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은 가치관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도전에 앞서서 내적 자아 성찰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는 내적 자아성찰보다는 스펙이 더 인정받는 사회에서 외적인 것을 더 중요시 했습니다.

**안:** 세상에 제 이름이 알려지고, 신문에 저에 대한 기사가 실리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유명한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 보면 한때 이름을 떨쳤던 그 분들이 어느 순간 추락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런 이유를 자세히 관찰해 보니 추락한 유명인들에서 공통점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해 본다면 실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정비가 더 늘어가게 됩니다. 반대로 주위의 평가는 롤러코스터처럼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그 실력이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가게는 객관적 사실인데, 주위 평판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실력이 정상에 도달했다고 하더라도, 주위에서의 반응이 좋지 않으면 그것이 진짜 자신의 실력인줄 착각하고 맙니다. 남들의 관점이 자신의 관점보다 커 보일 때, 그 상황을 견뎌내지 못하는 겁니다.

**박:** 김종인 前 경제수석께서 ‘모든 선택은 딜레마’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고민에 부딪히게 되면 그 상황을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이 던져 준 질문에 수동적으로 살아가기 보다는, 자신 스스로 문제를 던지고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 저는 7년 동안 의료업과 컴퓨터 일을 동시에 했습니다. 새벽 3~6시까지는 컴퓨터 관련된 일에 매진했고, 나머지는 의사 분야의 생활에 충실했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니,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하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품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 (자격검정)

자격과정	교육기간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자연치유의학, 식품영양보충학,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약용식품학, 총 7개 과목 ※ 특강 : 자연건강법(차세교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 효소발효액	14주 과정 토요일 반

**접수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문의** 02)3147-2020 [www.kile.or.kr](http://www.kile.or.kr)

**지부교육원**

창원 055-543-6155 호남 063-288-5623 전북익산 063-854-1060 부산 051-441-0111  
울산 052-260-1037 충청북부 043-263-9966 대구 053-566-1116 해운대 051-757-9990  
강원서부 033-252-3682 경남 055-932-5877

<저거는 맨날 고기 먹고>의 저자 우학 스님의 신간

**감사하고 사랑하며**

책을 펼치는 순간부터 삶의 빛깔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학 스님은 감사와 사랑을 참좋은 행복 바이러스라고 말합니다. 이 책에서는 참좋은 행복 바이러스인 감사와 사랑이 우리가 늘 꿈꾸는 행복, 그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스님의 일상을 통해 보여 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일상이라는 것이 보통의 우리에게 그리 멀지도 낯설지도 않은 바로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을, 그래서 행복이 언제나 우리 곁에 있었음을 이 책은 깨닫게 할 것입니다. **지금, 감사하고 사랑하십시오..**

참좋은행복 바이러스 | 컬러 304쪽 | 정가 13,000원  
구입문의 도서출판 참좋은인연 또는 불교대학서점

는 상황이 왔습니다. 컴퓨터 바이러스가 매년 2배씩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학교에서는 지도학생을 맡으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지도학생을 맡으라는 것은 결국 다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라는 뜻입니다. 학생은 자기의 인생을 걸고 저에게 배우러 왔는데, 그 시간에 제가 딴 짓을 한다는 것은 나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참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선택은 결국 학생을 수반합니다. 1주일 동안 그 고민을 하는데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신기하게도 고민을 계속하다 보면 마음이 정리되고 내가 내 인생에서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6개월 동안 열심히 고민을 하면서 저는 스스로 3가지 원칙을 정했습니다. 첫째는 과거를 잊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하면 무엇을 자주 가지게 됩니다. 모든 선택은 이걸 놓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하려 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중요한 선택을 할 때는 과거를 잊어야 합니다. 실패든, 성공이든 모두 잊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주위 평판에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학생이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서 자기 가 원하지도 않은 과를 선택했지만, 힘들어하는 학생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도 힘들어 합니다. 진정 주위를 행복하게 하고 싶다면, 자신이 먼저 행복해져야 합니다. 부모님에게 단기적인 행복을 드리기 위해, 나를 희생하는 것은 결국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그런 사람이 발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 청년, 정의를 생각하다



조국



김여진

김: 얼마 전 제가 '미친 x' 으로 검색어 1위가 됐습니다.

그 말이 나오기까지는 아마도 '홍대 청소년노조 사태'가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저는 1월부터 홍대를 찾아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시지만 그 일이 갑작스럽다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까지 결정하게 된 데에는 많은 과정을 지나쳐왔습니다. 4-5년 쯤 JTS에서 거리모금 활동을 시작하면서 조금씩 '내가 지금 걷고 싶은 길이 뭘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4대강 사업을 시작했을 때 조계사에 갔었고, 그렇게 한 발 한 발 내딛다가 홍대까지 갔습니다. 제게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홍대 사태를 보고 '왜 저분들이 죄져 임금을 받는 것을 우린 당연하게 생각했을까?'라

습니다. 그리고 김여진씨가 '날라리' 여서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날라리인 나도 이렇게 한다', '날라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지사, 열사, 투사만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이고 날라리라도 자기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날라리라는 작명은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까?

김: 처음 홍대를 찾아갔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트위터에 글을 올렸고, 소위 '병개'를 통해 홍대 앞에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병개를 친지 10시간만에 5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몰랐는데, 그날 모이고 보니 홍대 앞에서 그분들이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1월이고 출근도 해서, 일단 술집을 잡고 들어가 그 곳에서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홍대에서 술을 마시며, 우리끼리 내린 결론은 "우리 수준이 이렇지 뭐?"가 아니라, "우리 수준은 이거야"였습니다. 그냥 우리 수준이 이렇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야구를 아무리 좋아해도 선수대신 내가 경기를 치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냥 저희는 옆에서 응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래 우린, 날라리야'라고 말하는 겁니다. 힘이 약하면 연대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날라

정치에 무관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

말 않으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에 관련된 일들을 트위터에 올리기 시작했고, 응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점차 많아져 바자회며 김장, 파티 등을 열어 그분들을 응원해 왔습니다. 그냥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한 것입니다. 그러다 과감하게 손을 붙잡고 나니, 믿음이 생기고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던 겁니다.

김: 우리는 모두 타인의 덕을 보고 삽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람이 받는 임금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노동의 덕을 보는 것은 내가 잘라서 그런 대접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김여진씨의 홍대 사태는 연대의 손길을 내민 것입니다. 그런 연대의 손길이 모여서 홍대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김여진씨를 할퀴려 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김: 사실 제가 좀 둔한 데가 있습니다. 상처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받고 싶습니다. 함부로 상처를 받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요즘 제가 가장 두려운 건 저를 사랑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단지 '날라리'에 불과한데, 사람들이 저에게 거는 기대가 때문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김: '날라리'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날라리 외부세력'을 조직하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날라리'라는 말이 너무 좋

리 외부세력'이라고 칭하고, 먹을 것 싸들고 가서 갖다드리고 재봉떨어드린 것 밖에 없습니다.

김: 김여진씨가 얼마 전 만든 플래카드에 이렇게 적혀있는 걸 봤습니다. '등록금 반값 내자.' 등록금을 반값으로 내버리기 전에, 아예 반만 내버리겠다는 겁니다.

김: 등록금을 반값으로 내리겠다는 것은 한나라당에서 먼저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실현시켜드려야겠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 한 겁니다. 제가 낸 세금, 그리고 여러분들이 낸 세금으로 차도 타고 다니고 대우를 받고 있으니, 그분들이 말한 건 지켜드리게 하는 것이 예의라 생각했습니다.

김: 사실 현행법상으로도 학교에서 수익 사업을 하면 그 수익의 80%를 학교에 돌려줘야 합니다. 그 현행법만 실현 돼도 우리는 반값 등록금을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김: 사실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몫입니다. 어렵지만 그래도 다 함께 용기를 내서 실현 시켜야 합니다. 요즘 조국 교수님은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진보전원플래너에 대해 콘서트를 열고 있습니다. 대선에 나오실 것도 아니시면서 그렇게 까지 하시는 이유는 뭘니까?

김: 바로 2012년 때문입니다. 저는 법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태껏 배워왔고, 가르쳤던 법의 모습이 이 세상에선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2012년 이후에도 이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2012년은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우리나라 입법, 권력, 행정 권력이 동시에 바뀌는 때입니다. 4대강을 비롯해서, 북한과 한국을 둘러싼 다섯 개의 나라 권력이 엄청난 변화를 겪는 시기입니다.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이에 따라 한반도의 사회 국제현상이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10-15년 뒤에 여러분들 자식이 '아빠 엄마는 2012년에 뭐하고 있었어?'라고 묻는다면 대답 하시겠습니까. 김여진씨의 '날라리 외부세력' 처럼 저도 저만의 방식으로 질러본 일입니다.

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권리중 하나가 바로 투표입니다. 사람들이 투표를 왜 하지 않냐고 물으면, "찍을 사람이 없다, 그놈이 그놈이다, 찍어봐야 안바뀐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투표는 꼭 해야만 합니다.

김: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투표를 할라치면 지역구 출신들이 하나 같이 맘에 들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은 우선 정치란 게 뭘지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우선 각자가 낸 세금으로 국가의 자원이 만들어 지고, 그 자원의 분배권한을 가질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정치인입니다. 저도 세금을 내는 사람입니다. 그 세금이 모여 4대강에 쓰일 건지, 어디에 쓰일 건지를 국회의 공판에서 모두 결정합니다.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투표라는 게 뭘까요. 투표는 올바른 정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선과 차선, 차악과 최악이 있다면 최선인 사람 없어도 최악은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선의 선택은 없지만, 적어도 이 사람만큼은 절대 정치인을 시킬 수 없다는 의사표시는 해야합니다. 그럼 진짜 최선은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이 최선이 되면 됩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20대 비례대표를 뽑고 있습니다. 20대 목소리를 40-50대의 기성세대들에게 말하지 말고, 직접 20대의 소리를 내면 됩니다. 투표를 안 하는 사람들이 보통 나는 정치와 무관하다고 말하지만, 세상에 정치와 무관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떤 선택이 최선이고 차선일지, 내가 낸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 것이 맞는지 고민해 보시라는 겁니다.

김: 연예인들이 시청률을 신경 쓰듯이, 정치인들은 표가 나오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당연히 투표율이 높은 쪽으로 정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지방에 경로당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어르신들은 무조건 100% 투표를 합니다. 정치인들은 투표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의견에 절대 귀 기울여 주지 않습니다. 말을 지키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자신의 말을 하는 게 더 우선입니다.

### 이주의날씨 6월 첫째 주(6월 1~7일)

#### 구름 많고 한 때 비... 일교차 커

기상 정보 최저/최고기온°C/강수량㎜ (6월 1일)  
해돋이 05:13 해질 19:47

	목(2)	금(3)	토(4)	일(5)	월(6)	화(7)
서울	구름많음 17/26	구름조금 16/27	구름많음 16/27	비후강 16/25	구름조금 17/27	구름많음 18/28
대전	구름많음 15/26	구름조금 14/27	구름많음 15/27	비후강 16/25	구름조금 17/28	구름많음 18/28
광주	구름많음 15/27	구름많음 16/28	구름많음 17/28	비후강 17/25	구름조금 18/28	구름많음 18/29
부산	구름많음 18/25	구름많음 17/26	구름많음 17/26	비후강 16/23	구름조금 17/24	구름조금 17/24
대구	구름많음 17/26	구름많음 16/28	구름많음 17/28	비후강 17/25	구름조금 18/28	구름많음 18/29

### ‘자비의 미안마 돕기’

불자님들의 정성 어린 후원금은 양곤 나인따야에 건설중인 코리아기독교총합대학교 건립, 식수부족 공동우물 파기, 신뽕출가의식, 불자어린이 학용품 지원 등으로 전달되며 봉사단 현지 방문에 맞춰 후원물품도 직접 전달됩니다. 담당자 안내를 받으신 후 후원금 입금과 후원물품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후원내역을 지정하실 수 있으며 봉사단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미안마문화원 02)733-5670 / 현대불교신문 02)2004-8214  
후원금 입금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로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 2011년 옥천범음대학 하계특강안내

귀의 삼보하옵고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부설 옥천범음대학에서는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보유자이신 김구해스님께서 직접 생전예수재를 교수하시니 많은 분들의 동참바랍니다.

□ 생전예수재 - 교수 : 김구해 (보유자)		
	날짜 및 요일	시 간
개강일	6월 30일 목요일	오후 1시 ~ 3시
수업일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후 1시 ~ 3시
종강일	7월 29일 금요일	오후 1시 ~ 3시
□ 법 고 무 - 교수 : 이기봉 (전수교육조교)		
	날짜 및 요일	시 간
개강일	6월 30일 목요일	오후 3시 ~ 5시
수업일	매주 월요일 목요일	오후 1시 ~ 3시
수업일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 5시
종강일	7월 28일 목요일	오후 3시 ~ 5시
□ 명 발 - 교수 : 한중희 (전수교육보조자)		
	날짜 및 요일	시 간
개강일	6월 28일 화요일	오후 3시 ~ 6시
수업일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 6시
종강일	7월 26일 화요일	오후 3시 ~ 6시

☛ 자세한 문의는 전화 02)392-3234  
※ (주의) 각 과목별 개강일, 수업일, 종강일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재 등재 **옥천범음대학 학장 이기봉 합장**

##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천불·삼천불·만불·개금·탱화·금고·범종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 성화미술원 내 전시관 : 031)591-1022  
● 휴대폰 : 011-302-1022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산 5-37번지 성화미술원 공당내 불교전시관 주·야 상담 합니다

◇ 성화불교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 [114도우미] 검색 → 114도우미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전참 클릭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전시관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